

7세기 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 元曉와 憬興의 國王論을 중심으로 -

金 相 鉉*

<目 次>

I. 머리 말

II. 王室의 佛敎信仰과 高僧의 諮問

III. 佛典으로 본 國王治國觀

IV. 맺는 말

[국문초록] 중대 초기인 7세기 후반은 삼국통일의 전후기로서 주목되는 시기이다. 본고는 이 시기에 있었던 ‘國王 治國의 일’에 대한 불교계의 논의를 당시의 대표적 고승인 원효와 경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신라 중대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했고, 국왕들은 독실한 신앙자였다. 궁중에는 별도의 사찰인 內院이 있었고, 국왕은 고승을 초청하여 說法을 듣거나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金庾信, 金良圖, 金天尊, 竹旨郎 등도 불교를 신봉했다. 이처럼 신라 중대 왕실과 귀족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하고 후원했다. 따라서 불교는 통일 직후 三國民의 융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중대초기의 여러 고승들 중에서도 元曉(617~686)와 憬興(~681~)의 활동은 더욱 돋보인다. 원효는 100종의 저서를, 경흥은 47종의 저서를 각각 남긴 당대 최고의 學僧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신라 왕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원효는 무열왕의 공주 瑤石과 결혼했었고, 憬興은 神文王(681~692) 때 國師가 되어 궁중을 출입하면서 조정의 여러 자문에 응했다. 따라서 신라 왕실이 이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의 정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經論에 보이지만, 특히 『金光明經』과 『薩遮尼乾子經』, 『王法正理論』에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특히 국왕의 과실과 공덕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신라 학승들은 대부분 『금광명경』을 중시했지만, 특히 원효는 2종, 憬興은 5종의 주석서를 각각 지었다.

원효와 경흥은 국왕의 치국과 관련하여 『出愛王經』, 즉 『왕법정리론』에 의하여 이해했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 한다. 국왕의 10종 과실에 주목하기도 했고, 경흥도 『왕법정리론』의 이 내용을 취하여 국왕의 악을 경계했었다. 이들은 “왕이 만약 과실을 범한다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수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에도 주목했을 것이다. 원효와 경흥은 『薩遮尼乾子經』을 그들의 저서에 여러 차례 인용한 바 있다. 이 경의 詣嚴熾王品 및 王論品에도 왕이 지켜야 할 여러 도리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금광명경』과 『살차니건자경』에 의하면, ‘국왕은 민의 父母’라고 한다. 그리고 “왕이란 백성으로써 나라를 삼아야 성립될 수 있기에 민심이 불안하면 나라는 곧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원효는 이 구절을 주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살차니건자경』과 『왕법정리론』 등에는 국왕의 현실 정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경전을 주목했던 원효와 경흥은 불교의 정치사상, 특히 국왕의 치국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금광명경』에 대한 원효와 경흥의 주석서는 현존하지 않지만, 다른 저술에 인용된 단편적인 글만으로도 이들이 『살차니건자경』과 『왕법정리론』 등에 의해서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효 및 경흥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던 중대초기의 신라 왕실이 이들의 불교적 정치사상에 영향 받지 않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영문초록] During the reign from muyeolwang(武烈王, 654~661) to Hyeongwang(惠恭王, 765~780) is called Joongdae(中代, the mid-era) in Silla history. The late in the 7th century of the early Joongdae is more noteworthy as the former and latter terms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is study is willing to look into the discussion in the world of Buddhism about ruling a nation of the King in this time, focusing on Wonhyo(元曉, 617~686) and Gyeongheung(憬興, ?~681~?) who were the representative high priests(高僧) at that time.

The Royal family during Joongdae of Silla believed in Buddhism and the Kings were true followers. There was Naewon(內院) as an extra temple in the palace and the sovereigns had invited high priests and heard Buddhist sermon or wanted political consultation from them. The persons who made the most outstanding contributions in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such as Kim Yu-sin(金庾信), Kim Yang-do(金良圖), Kim Cheon-jon(金天尊) and Jukchirang(竹旨郎) adhered to Buddhism. Thus,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ies had actively faith in and supported Buddhism in the mid-era of Silla. Therefore, Buddhism not only contributed to unite the people of the Three Kingdoms directly after the Unification but also enormously influenced on politics those days.

The activities of Wonhyo and Gyeongheung among many high priests in the early Joongdae were especially remarkable. They were as the best learned priest(學僧) at that time, Wonhyo wrote 100 species of books and Gyeongheung left 47 sorts of writings. Also, they had special relation with the Royal family of Silla, for example, Wonhyo had married Princess Yoseok(瑤石) who was the daughter of muyeolwang and Gyeongheung had frequented the palace as Guksa(國師, the Most Reverend Priest) in the reign of Sinmunwang(神文王, 681~692) and provided various

consultations to the Royal Court. Consequently, the Royal family of Silla seems to be affected by them considerably.

A variety of Sutras state about political ideas in Buddhism, particularly, Suvarna-prabhāsottama-sūtra(金光明經), Bodhisattva-gocara-upāya-visaya-vikurvāna-nirdeśa-sūtra(薩遮尼乾子經) and Rājadharmā-nyaya-sastra(王法正理論) are detailing on that ; those Sutras especially include faults and moralities of a king among the contents on governing a country as a ruler. Most of learned priests value Suvarna-prabhāsottama-sūtra, in particular, Wonhyo wrote two species of commentaries and Gyeongheung wrote those of five on that.

It said that Wonhyo and Gyeongheung understood governing a country of a king based on Churaewanggyoung(出愛王經) — that is Rājadharmā-nyaya-sastra. They paid attention to ten sorts of king's faults and Gyeongheung also gave warning ruler's vice by quoting this contents from Rājadharmā-nyaya-sastra. They probably watched this phrase, “If a king commits an error, the people won't obey his orders with respect although he has a big warehouse, many aides and numerous soldiers.” Wonhyo and Gyeongheung cited Rājadharmā-nyaya-sastra into their books several times.

Yeumchiwangpoom(詣嚴熾王品) and Wangronpoom(王論品) of this Sutra also explain many reasons which a king must maintain. Suvarna-prabhāsottama-sūtra and Bodhisattva-gocara-upāya-visaya-vikurvāna-nirdeśa-sūtra say that a monarch is a parents of a people. And both Sutras also say that, “if public sentiment has unrest, the nation will be in an extremely precarious position soon because a king should regard the people as the nation”, Wonhyo paid attention to this phrase.

The Sutras such as Suvarna-prabhāsottama-sūtra and Bodhisattva-gocara-upāya-visaya-vikurvāna-nirdeśa-sūtra and so on, like this, mentioned the concrete contents about political activities of a king in reality. Therefore, Wonhyo and Gyeongheung who watched those Sutras had obvious cognizance of political ideas in Buddhism, especially about ruling a nation of the king. Even if their commentaries on Suvarna-prabhāsottama-sūtra are not in existence, we can know that they were deeply understanding on governing a nation of the ruler ; using Bodhisattva-gocara-upāya-visaya-vikurvāna-nirdeśa-sūtra and Rājadharmā-nyaya-sastra and so forth, through only the fragmentary scripts which were quoted in their other writings. It seems difficult that Silla's Royal family in the early Joongdae who had special connection with Wonhyo and Gyeongheung didn't be influence by their Buddhist political ideas.

[주제어] 정법치국(正法治國, Ruling a Nation with Upright Reason), 원효(元曉, Wonhyo), 경흥(景興, Gyeongheung), 『금광명경』(『金光明經』, Suvarna-prabhāsottama-sūtra), 『왕법정리론』(『王法正理論』, Rājadharmā-nyaya-sastra), 『살차니건자경』(『薩遮尼乾子經』, Bodhisattva-gocara-upāya-visaya-vikurvāna-nirdeśa-sūtra)

I. 머리말

신라의 중대 전기는 대략 7세기 후반으로부터 8세기 초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삼국통일의 전후 시기로 거듭되는 삼국간의 항쟁과 복잡한 대외 관계, 그리고 통일 이후 민족의 갈등과 융합 등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중첩되던 때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이끌었던 당시 국왕들의 정치이념은 무엇이었던지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여러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신라 중고기의 불교의 정법정치사상을 살핀 연구¹⁾는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필자도 만파식적설화를 검토하여 이 피리는 중대 무열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려고 한 상징적인 보물이면서 동시에 유교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교사상과의 대립이나 갈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지적했었다.²⁾ 또한 필자는 신라 중대 왕실의 불교신앙을 검토하여,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하고 후원했으며, 이 시기의 정치에 미친 불교의 영향은 적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³⁾ 그러나 이 시기 불교의 정치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또 하나의 과제였지만, 자료의 부족은 이 과제의 해결을 어렵게 했다.

필자는 元曉와憬興은 ‘王理國事’, 즉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논함에 있어서 『出愛王經』에 많이 의거했다는 기록을 찾고 이를 주목하게 되었다. 비록 단편적인 기록일지라도 7세기 후반 불교정치사상의 해명을 위해서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고, 특히 원효와 경흥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왕실과도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 중대 초기에 해당하는 7세기 후반의 정치사상을 불교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⁴⁾ 구체적으로는 원효와 경흥 등 신라의 고승들이 참고했거나 연구했던 많은 불교 경론 중에서도 『金光明經』, 『薩遮尼乾子經』, 『王法正理論』, 『瑜伽論』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들 경론에는 國王의 治國에 관한 보다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張志勳, 「新羅 中古期 諸王의 正法治國思想」 『겨레문화』 10, 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6.

2) 줄고,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3) 줄고, 「신라 중대의 불교사상 연구」 『국사관논총』 85, 국사편찬위원회, 1999.

4) 본고는 제62회 한국고대사학회 학술발표회(2001년 10월 6일, 동국대학교)에서 「신라중대 초기의 불교정치이념」이란 주제로 발표했던 요지를 많이 수정·보충한 것이다.

II. 王室의 佛敎信仰과 高僧의 諮問

1. 中代王室의 佛敎信仰

신라 중대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했고 국왕들은 대부분 독실한 불제자였다. 문무왕은 佛法을 공경하여 유언으로 火葬을 당부했고 죽어서도 불법을 받들어 崇尚하기를 원했다. 皇福寺金銅舍利函記에서는 神文王이 五戒로 세상에 응하고 十善으로 백성을 다스려 통치를 안정시키고 공을 이루었다고 찬양했다. 그리고 692년 7월 2일에 신문왕이 돌아가자, 神睦太后와 孝昭王은 宗廟聖靈을 위해서 禪院伽藍을 건립하고 3층석탑을 건립했다. 聖德王은 돌아간 신목태후와 효소왕을 위하여 706년에 佛舍利 4과와 純金彌陀像 6촌 1구와 『無垢淨光大陀羅尼經』 1권을 탑 속에 봉안하고, 신문왕과 신목태후와 효소왕의 代代 聖廟가 涅槃山을 베고 菩提樹에 앉기를 빌었다.⁵⁾ 그리고 聖德王은 太宗大王을 위하여 奉德寺를 세우고 7일 동안 仁王道場을 개설하고 大赦했다고 한다.⁶⁾ 인왕도량은 『仁王般若經』을 토대로 한 법회의식이고, 백 명의 고승을 모시고 개최하는 仁王百高座會와 비슷한 법회였을 것이다. 孝昭王은 望德寺 낙성법회에 참석하여 공양을 베풀었고, 왕위에 오르기 전에 五台山에서 수행한 바 있는 聖德王은 殺生이나 屠殺을 금하도록 下敎했으며, 景德王은 眞表로부터 菩薩戒를 받았다. 宮中에는 內院이 있었고, 국왕은 고승을 초청하기도 하고, 사원의 法會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신앙 영험에 감동하여 불사를 행하기도 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金庾信, 金良圖, 金天尊, 竹旨郎 등도 불교를 신봉했다. 김유신은 화랑 시절에 그의 낭도를 龍華香徒로 불렀고, 遠源寺를 창건하기도 했으며, 佛寺에서 기도하여 感應을 얻는 일도 있었다. 金良圖는 평생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興輪寺의 主佛과 左右菩薩像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조정에서 당의 침공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때, 天尊은 明朗法師를 천거했다. 竹旨郎의 탄생설화에도 미륵신앙의 영향이 보인다. 神文王 때의 宰相 忠元은 靈鷲寺를 창건했다. 이처럼 신라 중대 왕실과 귀족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하고 후원했다. 따라서 불교는 통일 직후 三國民의 融合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에 끼친 사상적 영향 또한 적지 않다.⁷⁾

5) 皇福寺金銅舍利函記,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p. 347.

6) 『三國遺事』 권2, 聖德王條.

7) 줄저,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pp. 107~150 참조.

2. 新羅王室과 元曉 · 憬興

신라 중대 왕실에서는 고승을 國師에 책봉한 경우가 있고, 다른 여러 고승과도 가까이 했다. 武烈王은 元曉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고, 文武王의 주위에는 智義, 明朗, 義相 등이 있었으며, 神文王은 憬興을 國老에 책봉했고, 孝昭王은 惠通을 國師로 삼았다. 국왕은 고승으로부터 說法을 듣거나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諫言을 듣기도 했다. 文武王이 義相의 간언에 따라 築城의 대 역사를 중지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대초기의 여러 고승들 중에서도 元曉와 憬興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효는 100여 부의 저서를, 그리고 경흥은 47부의 저서를 남긴 대표적인 학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라 왕실에 준 영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효는 무열왕 때 瑤石公主와 결혼함으로써 왕실과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원효가) 어느 날 상례에서 벗어나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는가. 나는 하늘 받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 사람들이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太宗이 그것을 듣고서 말했다. “이 스님께서 아마도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때 瑤石宮에 홀로 사는 공주가 있었다. 궁중의 관리를 시켜 원효를 찾아서 궁중으로 맞아들이게 했다. 궁리가 칙명을 받들어 원효를 찾으려 하는데, 벌써 남산으로부터 내려와 蚊川橋를 지나가다가 만났다. (원효는) 일부러 물에 떨어져 옷을 적셨다. 궁리는 스님을 요석궁으로 인도하여 옷을 말리게 하니, 그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공주가 과연 태기가 있어 설총을 낳았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명민하여 경서와 사서에 두루 통달했다. 그는 신라 十賢 중의 한 분이다. 우리말로써 중국과 外夷의 각 지방 풍속과 물건 이름 등에 통달하고 六經文學을 訓解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전수하여 끊이지 않는다.⁸⁾

원효가 요석공주를 만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太宗武烈王(654~660) 때인 원효의 나이 37세로부터 43세 사이에 있었던 일임은 이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며 여인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일부러 냇물에 떨어져 옷을 적시기도 했다는 원효의 행동에는 아무래도 설화적인 윤색이 가미되었을 것이다. 그리

8) 『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條.

고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운운의 노래에는 원효의 자공심이 엿보인다. 그는 스스로 하늘을 받치는 기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태종무열왕만이 알고서 원효를 궁중으로 맞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으로 보면, 왕의 정략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효는 皇龍寺에서 『金剛三昧經論』을 강의한 적이 있다.王妃의 모진 병이 낫기를 祈願하며 왕과 신하와 道俗 등이 함께 참석한 法會에서의 講經이었다. 또 그는 문무왕 2년(662)에 군사 작전상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암호문서의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위기에 처한 신라군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군사를 일으켜 唐軍과 합세하고자 金庾信이 然起와 兵川 두 사람을 먼저 보내어 그 합세할 기일을 물었다. 당나라 장수 蘇定方이 송아지와 난새를 그려서 보냈다. 신라 사람들이 그 뜻을 해독하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원효법사에게 물었다. 원효는 그것을 해독하여 말하기를, “군사를 속히 귀환시키라는 뜻이다. 書犢과 書鸞의 두 反切음을 이룬 것이다.”고 했다. 이에 김유신이 군사를 돌이켜 패장을 건너려 할 때 명령을 내렸다. “뒤에 건너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군사가 앞을 다투어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 군사가 공격해와 미처 건너지 못한 자들을 죽였다. 다음 날 김유신은 도리어 고구려 병을 추격, 수만 명을 사로잡거나 참살했다.⁹⁾

661년 8월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는 평양성을 포위했다. 평양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唐軍에게는 군량이 부족했다. 10월 경 평양의 당군은 신라가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해 주기를 요구해 왔다. 적지를 뚫고 평양까지 군량을 수송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 해 12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군량 수송 작전을 감행했고, 2달 만에 성공했다. 그러나 군량을 확보한 소정방은 大雪을 핑계로 철군을 계획하고, 그 작전상의 비밀을 암호로 신라군에 보내왔는데, 그것을 해독하지 못해서 사람을 시켜 원효에게 물었던 것이다. 당시 46세의 원효는 소정방이 그려 보낸 송아지와 난새의 그림을 書犢書鸞의 半切音으로 읽고 速還의 의미로 해석, 위기에 처한 신라군을 도왔다. 이처럼 원효는 군사적인 현실 문제에까지 자문을 했던 것이다. 비록 원효가 당시의 신라 왕실이나 귀족들과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권력을 비호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백안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9) 『三國遺事』 권2, 太宗春秋公條.

원효는 자신의 저술 중에 『金光明經』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 즉, 『起信論疏』에서 6회, 『涅槃宗要』에 2회, 그리고 『金剛三昧經論』, 『大慧度經宗要』, 『法華經宗要』, 『梵網經菩薩戒本私記』 등에서 각 1회를 인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金光明經疏』 8권 및 『金鼓經義記』를 짓기도 했다. 『금고경』이 『금광명경』의 異經名임을 감안하면, 원효는 『금광명경』에 관한 연구서를 2종이나 저술할 정도로 이 경을 중시했다.

憬興(~681~)의 생몰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620년경으로부터 700년경까지 생존했을 것이라는 설¹⁰⁾이 유력하다. 경흥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신문왕 때의 憬興大德은 성이 水씨며 熊川州 사람이다. 18세에 출가하여 三藏에 통달함으로서 명망이 당대에 높았다. 開耀 원년(681)에 문무왕이 장차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신문왕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다. “경흥법사는 국사가 될 만하니, 내 말을 잊지 말라.” 신문왕이 즉위하여 國老에 책봉하고 三郎寺에 살게 하였다. 경흥이 갑자기 병이 나서 한 달이 넘도록 앓았다. 한 여성이 와서 그를 문안하고 『華嚴經』 중의 善友原病之說로서 말했다. “지금 스님의 병은 근심으로 생긴 것이니 즐겁게 웃으면 나올 것입니다.” … 경흥이 어느 날 대궐에 들어가려 하니 시종하는 이들이 동문 밖에서 먼저 채비를 차렸다. 그런데 말의 안장과 신과 갓이 매우 화려하여 행인들이 길을 비켰다.¹¹⁾

이처럼 文武王(661~681)은 백제 웅천주 출신의 고승 憬興을 國師로 삼을 것을 유언으로까지 당부했고, 神文王(681~692)은 그를 國老로 삼았다. 그리고 통일 직후 신라의 國老가 된 경흥은 화려한 차림으로 대궐을 출입하면서 조정의 여러 자문에 응했다. 근심으로 인해 병을 얻어 한 달 이상 고생할 정도로 자문에 적극적이었다. 이처럼 삼국통일 직후에 신라가 백제 출신의 경흥을 國老로 삼았던 배경에는 불교신앙으로 민족 융합을 도모하려는 종교적·정치적 배려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¹²⁾ 경흥은 47종이나 되는 저서를 남겼는데, 이것은 그 무렵 元曉 다음으로 많은 것이었고, 또한 그의 교학은 불교 전반에 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흥의 저서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겨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3권과 『三彌勒經疏』 1권뿐이다. 경흥은 『金光明經』을 주목하여 『金光明經略意』 1권, 『金光明最勝王經述贊』

10) 渡邊顯正, 『憬興師の無量壽經第十八願觀』, 『인도학불교학연구』 34권 1호, 인도학불교학회, 소화 60, p. 128; 韓泰植, 『憬興의 生涯에 관한 再考察』, 『불교학보』 2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91, p. 194.

11) 『三國遺事』 권5, 憬興遇聖條.

12) 졸저,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5권, 『金明最勝王經略贊』 5권, 『金光明經料簡』 1권, 『金光明最勝王經疏』 10권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 책들도 대부분 잃어버렸고, 다만 『金光明最勝王經略贊』 5권은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학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당시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원효와 경홍의 위치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신라 왕실과의 인연 및 그 역할에 유의할 때, 이들이 신라 왕실의 현실 정치에 끼친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은 불교정치사상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이해와 그 활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Ⅲ. 佛典으로 본 國王治國觀

1. 『金光明經』 正論品の 國王觀

불교의 정치이념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經論에 보이지만, 특히 『金光明經』, 『薩遮尼乾子經』, 『王法正理論』, 『瑜伽論』 등에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금광명경』은 5종의 異譯本이 있었지만, 신라에는 寶貴역(597년) 『合部金光明經』 8권, 淨義역(703년) 『金光明最勝王經』 10권 등이 주로 유통되었다. 원효는 『합부금광명경』을, 그리고 경홍을 비롯한 많은 신라 학승들은 모두 『금광명최승왕경』을 텍스트로 했다. 『금광명최승왕경』은 번역 후 5개월 정도가 경과한 성덕왕 3년(704) 3월에 당에서 귀국한 사신 金思讓에 의해 신라의 국왕에게 전해졌던 것이다.¹³⁾

『금광명경』이 신라 사회에 유통되면서 영향을 준 사례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四天王寺의 창건이다. 침략해 오는 당나라 군사의 격퇴를 기원하며 문무왕 10년(670)에 건립했던 사천왕사는 『금광명경』의 四天王品에 사상적인 근거가 있다.¹⁴⁾ 사천왕품에서는 국왕이 행해야 할 호국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하고 있다. 만약에 어떤 국왕이, 자기의 몸과 王后와 宮女와 王子들과 宮殿을 보호하려 하거나, 그의 영토가 殊勝하게 하고자 하거나, 또는 갖가지 福德을 구족하려 하거나, 원적의 침입을 막고 모든 근심과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사천왕은 말한다.

13) 『三國史記』 卷8, 聖德王 三年 三月條.

14) 拙稿, 『高麗時代 護國佛敎 研究』, 『學術論叢』 1, 檀國大學校 大學院, 1976, p. 205.

國王은 그 마음을 放逸하거나 산란하게 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宮殿을 장엄할 것이며 … 훌륭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영락으로 장엄할 것이다. 조그마한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높은 양 하지 않으며, 自在한 생각을 버리고 방탕한 버릇을 여의어야 한다. 또한 겸손하고 교만을 버리고, 正念으로 이 經을 聽受하고, 說法者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내고, 宮內의 後妃 王子 媵女 등 모든 권속에게는 자애스러운 마음을 내어 平和스러운 낯으로 말할 것이다.¹⁵⁾

이처럼 사천왕은 국왕이 외침을 막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경을 聽受해야 한다고 했다. 『金光明經』의 正論品에는 국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如法治世 不行是事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이런 짓 하지 말라.
若行是者 其國殄滅 만일 이런 나쁜 일만 행하면, 그 나라는 아주 망해버리리. …

由王捨正 使國饑饉 왕이 바른 법을 버리므로 그 나라에는 흉년만 들고,
天於宮殿 悉懷愁惱 천상의 궁전에는 모두 수심과 근심을 품네. …

惡因多姦 然後傾敗 나쁜 짓은 간사한 데 말미암고, 그 뒤에 나라가 망하니,
若起多姦 壞於國土 만일 간사한 일 많이 있으면, 나라는 마침내 망하느니. …

當遠惡人 修治正法 악인은 멀리하고 바른 법 닦아서
安止衆生 於諸善法 중생들을 편케 할지니, 모든 착한 법에서
教勅防護 令離不善 가르치고 악을 막아서 나쁜 일은 멀리 여의도록.
是故國土 安隱豐樂 이리하면 나라 안은 편안하고 풍성하고
是王亦得 威德具足 임금도 마찬가지로 위덕을 갖추어 얻으리.¹⁶⁾

이처럼 『금광명경』의 정론품은 偈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왕이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내용이 많은 편이다.

『금광명최승왕경』의 王法正論品에도 왕법의 정론과 치국의 강요를 설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왕이 된 이에게 만약 정법이 없다면 다라를 능히 다스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자신도 훌륭한 왕위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15) 『金光明經』 卷2 四天王品 第六(大正藏 16冊, p. 341a).

16) 『金光明經』 卷3, 大正藏 16冊, pp. 347~348.

國人造惡業 王捨不禁制 국인이 악업을 짓더라도 왕이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斯非順正理 治擯當如法 이는 바른 도리에 순응함 아니니 법대로, 물리쳐라.
 若見惡不遮 非法便滋長 만약 악을 보고도 막지 않는다면, 非法이 자라나,
 遂令王國內 姦詐日增多 왕의 국내에 간사하고 속임이 날로 늘어 갈 것이다.
 王見國中人 造惡不遮止 악을 짓는 것을 보고도 왕이 이를 막지 않는다면,
 三十三天衆 咸生忿怒心 33천의 대중이 모두 분노하는 마음을 낼 것이다.
 因此損國政 詔僞行世間 국정은 어려워지고, 아첨과 거짓 세상에 행해져,
 被他怨敵侵 破壞其國土 원적의 침략을 받아 그 국토는 파괴될 것이다. ...

由正法得王 而不行其法 정법으로 왕이 되고 그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國人皆破散 如象踏蓮池 국인들이 모두 흩어지기를, 코끼리가 연못을 밟듯 하네.
 惡風起無恒 暴雨非時下 나쁜 바람 때 없이 불고 폭우도 때 없이 내리며
 妖星多變怪 日月蝕無光 요망한 별은 변괴가 많고, 일식과 월식으로 빛이 없다네.
 五穀衆花果 果實皆不成 오곡과 여러 가지 꽃과 과일은 열매가 모두 맺히지 않고,
 國土遭飢饉 由王捨正法 나라에 흉년들어 굶주림은 왕이 정법 버린 탓이다.¹⁷⁾

국왕은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만약 국왕이 악을 보고도 이를 막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國政은 어려워지고 여러 변괴가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국토는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國位를 잃게 되는 것도 아첨하고 속이는 사람 때문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별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害中極重者 無過失國位 國位 잃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 없으니,
 皆因詔佞人 爲此當治罰 모두 아첨하는 사람의 탓, 마땅히 별로 다스려라.
 若有詔誑人 當失於國位 아첨하고 속이는 사람 있다면 국위를 잃게 되니,
 由斯損王政 如象入花園 이로 王政 손상, 꽃밭에 코끼리가 든 것과 같네.¹⁸⁾

이처럼 『金光明最勝王經』 왕법정론품은 국왕이 正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평화롭지만, 만약 非法으로 다스린다면, 王政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전쟁과 질병, 그리고 자연의 여러 변괴까지도 그 원인은 모두 국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경에서는 설하고 있는 것이다.

17) 『金光明最勝王經』 卷8 王法正論品, 大正藏 16冊, p. 442c.

18) 『金光明最勝王經』 卷8 王法正論品, 大正藏 16冊, p. 443bc.

사신 김사량으로부터 『금광명최승왕경』을 전해 받은 성덕왕은 이 경을 주목했을 것이다. 신라 학승들도 『금광명경』을 중시하여, 元曉, 憬興, 勝莊, 道倫, 太賢 등이 이 경의 주석서를 남겼다. 특히 이 경에 주목한 元曉는 2종의 주석서, 그리고 憬興은 5종의 주석서를 지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필자는 『輯逸金光明經海東疏』¹⁹⁾ 및 『輯逸金光明最勝王經憬興疏』²⁰⁾를 보고한 바 있다.

2. 『王法正理論』의 國王論

원효와 경흥, 그리고 승장은 ‘王의 理國事’, 즉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논함에 있어서 『出愛王經』에 많이 의거했다고 한다.²¹⁾ 실제로 원효가 그의 『金光明經疏』에서 『出愛王經』을 인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金光明經』의 正論品에는 국왕이 惡을 따른다면 禍를 초래하여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국왕이 악을 막을 것을 권하는 대목이 있다. 원효는 이 부분의 주석에서 『出愛王經』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대왕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실에는 대개 열 가지가 있다. 만약 왕이 이와 같은 과실을 저지르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러 귀의하지 않을 것이다.

- 1) 種性이 높지 않음이요,
- 2) 自在함을 얻지 못함이요,
- 3) 그 성품이 포악함이요,
- 4) 날카롭게 분을 발함이요,
- 5) 은혜가 호사하고 박함이요,
- 6) 샅되고 아첨하는 말을 받아들임이요,
- 7) 의지 없이 행하여 威儀를 닦지 않음이요,
- 8) 착한 법을 돌아보지 아니함이요,
- 9) 차별을 모르고 지은 은혜를 잊어버림이요,
- 10) 한결같이 제 멋대로 하며 방일하기만 함 등이 그것이다.²²⁾

19) 졸고, 『東洋學』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4.

20) 졸고, 『新羅文化』 17·18합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0.

21) 王理國事 曉莊興則多依出愛王經 … 具如各疏 (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9, 大正藏 56冊, p. 687 下).

22) 曉云 如佛爲愛王說經云 大王當知 過失者略有十種 若王成就如是過失 雖有大府庫有大輔佐 有大軍衆 然不可歸仰 一種姓不高 二不得自在 三立性暴惡 四猛利憤發 五思慧(恩惠)

“왕이 만약 과실을 범한다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수많은 군사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 대목에 원효는 주목했을 것이다. 일본의 願曉(835-871)는 “莊興及則 卽取此也”라고 했다. 곧 『金光明經』을 주석한 신라의 勝莊·憬興·圓測 등이 모두 원효가 인용했던 『出愛王經』의 이 구절을 취해서 해석했다는 것이다.

신라의 여러 고승들이 중시했던 『出愛王經』은 어떤 경인가? 그러나 『出愛王經』은 여러 經錄에도 보이지 않고, 현존 대장경에도 이 경은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佛이 出愛王, 즉 優填王을 위하여 설한 경전이 전하는데, 곧 彌勒菩薩造·玄奘譯 『王法正理論』 1권이 그것이다. 648년에 번역이 끝난 『瑜伽師地論』 100권 중에서 제61권의 決擇分 중의 尋伺地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649년 7월에 大慈恩寺 翻經院에서 번역·간행한 것이다. 원효는 경전이 설해진 인연에 의해서 ‘佛爲愛王說經’이라고 표현했다. 『王法正理論』은 出愛王(優填王)을 위하여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願曉는 이를 인용하면서 『出愛王經』이라는 經名으로 표기했던 것 같다. 아무튼, 원효 등이 ‘王의 理國事’와 관련하여 많이 참고했다는 『出愛王經』은 현존하는 『王法正理論』과 동일한 경전이고,²³⁾ 『瑜伽師地論』 제61권의 내용도 또한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한 원효와 경홍의 사상은 『出愛王經』, 즉 『왕법정리론』에 그 토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관한 원효와 경홍의 저술이 전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왕법정리론』의 국왕론을 통해서 이들의 정치사상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왕법정리론』 1권에는 왕의 진실한 過失과 功德에 대하여 각각 9종을 설하고, 또 왕의 衰損門과 方便門, 그리고 왕으로서 사랑할 만한 법[可愛法]과 왕이 사랑할 만한 법을 이끌어 발휘하는 법[引發王可愛法]에 대하여 각각 5종을 설했다. 그런데 왕의 과실과 쇠손문은 마땅히 멀리 떠나야 하고, 왕의 공덕 및 왕의 방편문은 마땅히 닦아 익혀야 하며, 왕의 可愛法은 사모해야 하고, 引發王可愛法은 받아 지녀야 한다고 했다. 왕이 만약 이를 修學할 때는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왕법정리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奢薄 六受邪佞言 七所作不志不修儀則 八不顧善法 九不知差別忘所作恩 十一向縱任專行放逸(莊興及則 卽取此也)(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9, 大正藏56, p. 689).

23) 제62회 한국고대사학회 학술발표회(2001년 10월 6일, 동국대학교)에 참석했던 南東信 교수의 교시에 의해서 『出愛王經』이 곧 『王法正理論』임을 알았다. 감사를 표한다.

1) 왕의 과실

『왕법정리론』에 의하면, 왕의 과실에는 대략 아홉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왕이 이러한 과실을 범한다면, 비록 큰 창고가 있고, 훌륭하게 보좌하는 신하가 있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그 누구도 왕을 우러러 귀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왕의 과실 아홉 가지는 다음과 같다.

- 1) 自在로움을 얻지 못한 것.
- 2) 성품이 포악한 것.
- 3) 사납고 날카로워 화를 잘 내는 것.
- 4) 은혜가 지나치거나 또는 얇은 것.
- 5) 샅된 말과 허망한 말을 받아들이는 것.
- 6) 하는 일에 대해서서 생각도 하지 않고 법칙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
- 7) 착한 법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
- 8) 차별을 알지 못함으로써 은혜 베풀 것을 잊어버리는 것.
- 9) 한결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오로지 방탕하고 안일함을 일삼는 것.²⁴⁾

『왕법정리론』에서는 왕의 9종 과실 각각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참고가 되지만, 내용 전체를 소개하는 번거로움은 생략한다.

2) 왕의 공덕

『왕법정리론』에서 국왕의 9종 공덕은 왕의 9종 과실과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왕의 공덕에는 대략 9종이 있다. 왕이 만약 이러한 공덕을 성취한다면, 비록 큰 창고가 없고, 훌륭하게 보좌하는 신하가 없고, 많은 군중을 거느리고 있지 않더라도 모두 왕을 우러러 귀의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그 아홉 가지란 다음과 같다.

- 1) 大自在를 얻고,
- 2) 성품이 포악하지 않고,
- 3) 憤을 넘이 輕微하고,
- 4) 은혜를 날카롭게 하고,
- 5) 정직한 말을 받아들이고,

24) 云何名爲王之過失 大王當知 王過失者 略有九種 王若成就如是過失 雖有大府庫有大輔佐 有大軍衆不可歸仰 何等爲九 一不得自在 二立性暴惡 三猛利憤發 四恩惠奢薄 五受邪佞言 六所作不思不順儀則 七不顧善法 八不知差別忘所作恩 九一向縱任專行放逸(『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6a).

- 6) 하는 일에는 자세히 생각하고 위외와 법칙을 잘 따른다.
- 7) 善法을 돌이켜 생각하고,
- 8) 차별을 잘 알아서 은혜 베풀 줄 알고,
- 9) 제멋대로 하지 않고 방종하거나 안일하지 않을 것²⁵⁾

국왕은 모든 명령을 내려 선포하되 거리낌이 없을 때, 이를 국왕이 대자재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경홍이 “統領者란 곧 自在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던 것도²⁶⁾ 이 때문일 것이다.

3) 왕의 衰損門

무엇을 왕의 衰損門이라고 하는가? 대왕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왕의 쇠손문에는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 1) 잘 관찰하지 않고 여러 신하를 攝受하는 것.
- 2) 비록 잘 관찰하고 여러 신하를 섭수하되, 은혜와 묘한 행이 없음으로써 어려운 때에 협조하지 않는 것.
- 3) 오로지 방탕하거나 안일한 일 만을 행하여 機務를 생각하지 않는 것.
- 4) 오로지 방탕하거나 안일하여 창고를 지키지 않는 것.
- 5) 오로지 방탕하거나 안일하여 법다운 행을 닦지 않는 것.²⁷⁾

이러한 다섯 가지는 모두 왕의 쇠손문이 되는 것이다.

4) 왕의 方便門

무엇을 왕의 方便門이라고 하는가? 대왕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왕의 방편문에는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섯 가지란 다음과 같다.

- 1) 잘 관찰하여 여러 신하들을 攝受할 것.

25) 云何名爲王之功德 大王當知 王功德者 略有九種 王若成就如是功德 雖無大府庫無大輔佐 無大軍衆而可歸仰 何等爲九 一得大自在 二性不暴惡 三憤發輕微 四恩惠猛利 五受正直言 六所作諦思善順儀則 七顧戀善法 八善知差別知所作恩 九不自縱任不行放逸(『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7a).

26) 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9, 大正藏56, p. 687a.

27) 云何名爲王衰損門 大王當知 王衰損門略有五種 一不善觀察而攝群臣 二雖善觀察而攝群臣無恩妙行縱有非時 三專行放逸不思機務 四專行放逸不守府庫 五專行放逸不修行法 如是五種 皆悉名爲王衰損門(『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7c).

- 2) 때대로 능히 은혜와 묘한 행을 행할 것.
- 3) 방탕하거나 안일함 없이 機務를 오로지 생각할 것.
- 4) 방탕하거나 안일함 없이 창고를 잘 지킬 것.
- 5) 방탕하거나 안일함 없이 오로지 법다운 행을 닦을 것²⁸⁾

방편은 10바라밀 중의 하나에 속할 정도로 중요하다. 국왕은 여러 신하들의 충신과 기예와 지혜의 차별을 자세히 따져서 살펴 그들을 섭수하여 측근의 부하로 삼는 것, 이런 방편을 잘 관찰하여 여러 신하들을 섭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王의 可愛法

무엇을 왕이 사랑할만한 법인가? 대왕은 마땅히 알라. 모든 왕이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뜻을 들만한 법에는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 1) 온 세간이 경애하는 법.
- 2) 自在로움을 증상하는 법.
- 3) 원수의 적을 부술 수 있는 법.
- 4) 몸을 잘 거뒀 기르는 법.
- 5) 좋은 곳에 왕생할 수 있는 법.

이러한 다섯 가지가 왕이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뜻을 들만한 법이다.²⁹⁾

6) 能引王可愛法

어떻게 왕의 사랑하는 법을 꺼내어 발휘할 수 있는가? 대왕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왕들의 사랑하는 법을 꺼내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무엇을 그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다음이 그것이다.

28) 云何名爲王方便門 大王當知 王方便門略有五種 何等爲五 一善觀察攝受群臣 二能以時行恩妙行 三無放逸專思機務 四無放逸善守府庫 五無放逸專修法行(『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8a).

29) 云何名爲王可愛法 大王當知 略有五種 諸王可愛可樂可欣可意之法 何等爲五 一世所敬愛 二自在增上 三能摧怨敵 四善攝養身 五能往善趣 如是五種是王可愛可樂可欣可意之法(『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8c).

- 1) 은혜로써 세간을 기르는 것.
- 2) 뛰어난 용맹을 구축하는 것.
- 3) 훌륭한 방편.
- 4) 올바르게 수용하는 경계.
- 5) 부지런히 법다운 행을 닦는 것³⁰⁾

이처럼 『왕법정리론』에는 왕의 과실과 왕의 공덕과 왕의 쇠손문과 왕의 방편문과 왕의 사랑할 수 있는 법과 왕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을 능리 이끌어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설했다. 그리하여 “왕은 마땅히 수학하여 왕의 과실을 멀리 떠나야 하고 왕의 공덕은 닦아 익혀야 하며, 왕의 쇠손문은 멀리 떠나야 하고, 왕의 방편문은 닦아 익혀야 하며, 왕의 사랑할 수 있는 법은 사모해야 하고, 능히 왕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이끌어 발휘해야 함을 받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왕이 만약 이러한 것을 수락한다면,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³¹⁾ 결론짓고 있다.

이처럼 이 논에는 국왕이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과 함께 경계해야 할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흥은 『金光明最勝王經疏』에서 “人王이 惡을 좇는다면 禍가 생겨 나라가 패망하지만, 인왕이 善을 닦는다면 福이 이르러 나라가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³²⁾

신라의 勝莊과 憬興은 『왕법정리론』과 『유가론』에서 설하는 국왕의 공덕에 주목하여 그들의 『金光明經疏』에 인용하기도 했다.³³⁾ 그런데 『왕법정리론』과 『유가론』 권61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글자의 異同은 물론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유가론』에서는 왕의 10종 과실과 10종 공덕을 설하고 있음에 비해 『왕법정리론』에서는 9종 과실과 9종 공덕을 설하는 등의 차이가 보인다. 승장과 경흥이 인용하고 있는 국왕의 공덕이 10종인 것으로 보면, 『유가론』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30) 云何能引王可愛法 大王當知 略有五種能引諸王可愛之法 何等爲五 一恩養世間 二英勇具足 三善權方便 四正受境界 五勤修法行(『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8c).

31) 復次大王當知 我已略說 王之過失 王之功德 王衰損門 王方便門 王可愛法及能引發王可愛法 是故大王 應當修學 王之過失宜當遠離 王之功德宜當修習 王衰損門宜當遠離 王方便門宜當修學 王可愛法宜當希慕 能引發王可愛之法 宜當修行 大王 若能如是修學 當獲一切利益安樂(『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59b).

32) 人王從惡則禍生國敗 … 人王修善則福至國成(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9, 大正藏 56冊, p. 689a).

33) 莊云 如出家王經說 大王當知 王功德者 略有十種 則翻前說十種過失(興則取之)(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10, 大正藏 56冊, p. 690上).

많다. 원효가 인용한 왕의 과실은 10종으로 『유가론』 권61의 내용과 같다.

玄奘에 의한 『유가론』 100권의 번역이 완료된 것은 648년 5월이다. 당 태종은 『유가론』의 번역이 끝나자 필사 9본을 만들어 九州에 유통시키도록 했는데, 신라왕이 표문으로 요청하자 당 태종은 이를 보내주었다.³⁴⁾ 태종이 649년 5월에 돌아갔음에 유의하면, 이 논서가 신라에 전해진 것은 번역이 끝난 1년 안의 일이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별기』를 비롯하여 그의 저서 10여 종에 『유가론』을 인용했고, 그 인용 횟수는 100회가 넘는다. 즉 『이장의』 46회, 『중변분별론소』 21회, 『무량수경중요』 9회, 『대승기신론소』 9회, 『대승기신론별기』 7회, 『본업경소』 7회, 『열반중요』 6회, 『금강삼매경론』 4회, 『대혜도경중요』 2회, 『법화중요』 1회, 『미륵상생경중요』 1회, 『아미타경소』 1회, 『보살계분지범요기』 1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원효는 『瑜伽論抄』 5권, 『瑜伽論中實』 4권 등의 저술을 남길 정도로 『유가사지론』을 중시했다.³⁵⁾ 이 무렵 학승들은 대부분 『유가론』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덕왕 때의 관리였던 金志誠(652~?)이 無着的 眞宗을 우러러 사모하여 때때로 『유가론』을 읽었다고 한다.³⁶⁾ 이로 미루어 당시의 대표적 지식인들 중에도 가끔 『유가론』을 읽는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薩遮尼乾子經』의 國王論

불교의 정치이념을 설하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경전으로 『薩遮尼乾子經』 10권이 있다. 520년에 菩提留支에 의해 한역된 이 경전은 전체 12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왕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詣嚴熾王品 및 王論品은 국왕의 治國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신라의 원효와 경흥도 이 경을 중시했다. 원효는 이 경을 그의 『法華宗要』에 2회, 『涅槃宗要』에 1회, 『無量壽經宗要』에 1회 인용했다.³⁷⁾ 경흥도 그의 『金光明經疏』에서 五逆을 해석하는 중에 『薩遮尼乾子經』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 바 있다.

첫째 탐과 절을 파괴하거나 경전과 불상을 불 지르며 삼보의 물건을 빼앗거나, 둘째 삼보의 법을 비방하여 성스러운 법이 아니라고 말하여 장애가 되게 하

34)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35) 李箕永, 『韓國佛教研究』, 한국불교연구원, 1982, p. 398.

36) 한국고대사회연구소, 감산사아미타상조상기,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권, 가락국국사개발연구원, 1992, p. 299.

37) 이기영, 앞의 책, p. 396.

고 덮어 숨겨두거나, 셋째 일제의 출가자가 만약 계행이 있거나 계행이 없거나, 계를 지키거나 파계하는 이가 있거든 심하게 때리거나 나무라고 그 과실을 설명하면서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가사를 벗겨 환속하게 핍박하거나 역사하는 곳에서 부리거나 꾸짖어 세금을 내게 하거나 그 모습을 끊게 하는 일이다.³⁸⁾

경홍이 인용한 이 부분은 『살차니건자경』 제4권 王論品 중의 내용이다.³⁹⁾ 왕론품에는 살차니건자와 엄치왕의 문답이 계속되는데, 경홍이 인용한 내용은 살차니건자가 설한 五種의 根本罪에 대한 것으로, 경에는 五逆의 重罪를 지은 惡人은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물론 경홍은 경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인용했다. 아무튼, 경홍은 『살차니건자경』의 왕론품 등에 보이는 국왕의 치국과 관련된 내용에 유의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薩遮尼乾子經』에도 전륜성왕이 구족한 夫人寶, 摩尼寶, 輪寶, 象寶, 馬寶, 大臣寶, 主藏寶 등의 七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전륜성왕의 정치 행위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것일 뿐이다. 다음은 전륜성왕에 대한 내용이다.

“대왕이시여, 모든 소왕은 王論法에 의하며, 도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중생을 보호하지만 전륜성왕은 제외합니다. 전륜성왕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모든 중생이 착하지 못한 나쁜 법과 탐내는 마음을 버리고, 뒤바뀐 마음을 여의고, 잘못된 소견을 여윈 때문입니다. 또 그 나라에는 그릇된 법으로 사냥꾼이나 푸줏간이 없으니, 법왕의 법에 의하여 죄와 복을 분명히 알며, 마음이 미혹하지 않으며, 법을 의심치 않고, 움직이면 이치에 합당하며 허물을 일으키지 않는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륜성왕이 스스로의 업과 공덕에 의하여 세상을 지니는 것이니, 이때에는 모든 소왕의 王論은 모두가 시행되지 않습니다.”⁴¹⁾

38) 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6, 大正藏 56冊, 599 中. 興云 薩遮尼乾子經第四云 一破塔壞寺焚燒經像 盜三寶物 二謗三寶法 言非聖法 障礙覆藏 三一切出家人所 若有戒若無戒 持戒破戒 打罵訶責. 說其過失. 禁閉牢獄. 或脫袈裟逼令還俗. 責役驅使 責其發調 斷其命根.

39) 『薩遮尼乾子經』 권4, 王論品 2, 大正藏 9冊, p. 336b.

40) 大正藏 9冊, p. 330上.

41) 大王 諸小王等 依王論法 以道治國 護諸衆生 除轉輪王 何以故 轉輪聖王出世時 彼時衆生 離諸不善惡貪法心 離顛倒貪心 離 邪見心 彼彼諸國 無有非法屠獵師等 何以故 依法王法 明識罪福 心不迷悶 不疑於法 動則合理 不生過非故 大王當知 如是名為轉輪聖王 依自業力功德護持於彼世 時諸小王 論一切不行(『大薩遮尼乾子所說經』 권3 왕론품 1. 大正藏 9책, p. 332c).

이에 의하면, 전륜성왕이 세상에 있을 때는 小王의 王論 정도는 시행할 필요도 없이 전륜성왕의 공덕에 의하여 세상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륜성왕은 正法에 의해 통치한다고 할 뿐, 치국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하지는 않았다.

신라 중고기의 국왕들은 전륜성왕을 그들의 이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희망은 중대의 국왕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음은 聖德王에게 七寶와 千子와 長壽 등이 具足되기를 기원한 皇福寺塔의 舍利舍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황복사탑은 孝昭王과 神文王妃가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692년에 건립한 것인데, 聖德王이 전륜성왕과 같은 이상적인 군주이기를 희망했던 것이다.⁴²⁾

이처럼 신라 왕실에도 전륜성왕사상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륜성왕사상에는 국왕의 治國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효와 경흥 등은 국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살차니건자경』이나 『왕법정리론』 등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살차니건자경』에는 ‘王은 民의 父母’라고 했다. 그리고 백성에 의해서 나라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왕은 마땅히 알라. 왕이 설 수 있는 것은 백성으로써 나라를 이루기 때문이어서 민심이 불안하면 장차 나라 또한 위태로워진다. 이 때문에 마땅히 왕은 항상 백성 근심하기를 갓난아기 생각하듯 하여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⁴³⁾

“왕이란 백성으로써 나라를 삼아야 설 수 있기에 민심이 불안하면 나라는 곧 위태로워진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금광명경』에서도 왕은 백성의 부모라고 했다.

원효도 이 대목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왕은 백성의 부모’라고 한 『금광명경』을 주목하면서, “哀民如子 教善示報如教一子 故名父母”라고⁴⁴⁾ 해석했다.

『살차니건자경』에 의하면, 왕은 도리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계속해서 이 경에서는 王論法에 의하여 道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는 小王들의 治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하고 있다.

42) 金英美,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 『梨大史苑』 22·23, 1988.

43) 大王當知 王者得立以民爲國 民心不安國將危矣 是故王者 常當憂民如念赤子不離於心(『薩遮尼乾子經』, 大正藏 9冊, p. 330上).

44) 願曉, 『金光明最勝王經玄樞』 권9, 大正藏 56冊, p. 688下.

嚴熾王이 尼乾子에게 물었다. “大師여, 모든 왕들은 어찌 하여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니건자가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왕이란 백성의 부모여서, 도리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거두어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는 까닭에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왕은 백성 기르기를 갓난아이 기르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왕이시여,王者가 설 수 있는 것은 백성을 위주로 하여 나라를 이루기 때문이어서, 민심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나라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 사람은 늘 백성을 생각하되, 갓난아기라도 생각하듯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왕은 의당 제 나라 백성들의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추어 국내를 순시함으로써 수해와 가뭄과 풍우의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서 알고 있어야 하며, 곡식의 익고 안 익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흉년과 풍년, 있고 없음, 근심과 기쁨, 늙음과 젊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병들어 있는지 건강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감옥의 소송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유죄 무죄의 판결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왕자와 대신과 관리들의 有功無功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만백성을 걱정하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국내의 실정을 이렇게 알고 나서 왕의 권력으로 보호해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때에 맞추어 주도 록 하고, 거두어들여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잘 헤아려서 시행하며, 백성을 노역에 쓸 경우에는 시기를 적절히 함으로써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탐관오리의 횡포를 금지하여 백성이 안락하게 살도록 해준다면, 이것을 거두어 보호한다고 하고, 이것을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⁴⁵⁾

민심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나라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백성을 위주로 하여 나라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국왕은 백성들이 처해 있는 실정이나 관리들의 功過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왕이 어리석어서 왕론을 알지 못하고 正法을 행하지 못하여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한다면 이 국왕의 죄는 누가 다스리겠는가? 경전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한 뒤에 이렇게 대

45) 王言 大師 彼諸王等何故名王 答言 大王 王者民之父母 以能依法攝護衆生令安樂故 名之爲王 大王當知 王之養民當如赤子 推乾去濕不待其言何以故 大王當知 王者得立以民爲國民心不安國將危矣 是故王者 常當憂民如念赤子不離於心 當知國內人民苦樂 以時安行 知水知旱知風知雨 知熟不熟知豐知儉 知有知無 知憂知喜 知老知少 知病不病 知諸獄訟 知有罪知無罪 知輕知重 於諸王子大臣諸官 知有功者 知無功者 如是知者名不離心 大王當知 王於國內如是知已 以力將護 所應與者及時給與 所應取者念當籌量 役使知時不奪民利 禁肅貪暴民得安樂 是名攝護 名之爲王(『薩遮尼乾子經』 권3, 王論品 1, 大正藏 9冊, 330a).

답하고 있다. “만일 왕이 지혜가 없어서 능히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응당 나라 안의 지혜 있는 이로서 왕론을 잘 알고 항상 바른 법을 행하며 능히 실답게 말하는 沙門을 구하여 물어야 한다.”라고.⁴⁶⁾

義相(625~702)이 문무왕에게 간했다는 다음의 내용은 당시 고승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여러 성을 쌓고 궁궐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단장했다. 특히 21년(681)에는 京城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都城을 새롭게 축성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義相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간했다고 한다.

(문무왕은) 서울에 성곽을 쌓고자 해서 이미 관원을 갖추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때에 義相法師가 이 소식을 듣고 글을 보내어 아뢰었다. “王의 政敎가 밝으면, 비록 풀밭에 선을 그어서 城이라고 하여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하고, 재앙을 씻어 복이 될 것이며, 정교가 밝지 못하면, 비록 長城이 있다 하더라도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역사를 중지하였다.⁴⁷⁾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는 일보다는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의상의 건의는 “국왕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금광명경』 정론품의 내용이나, “백성을 노역에 쓸 경우에는 시기를 적절히 함으로써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 『살차니건자경』의 내용이나, “만약 왕이 과실을 범하게 된다면, 비록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던 『왕법정리론』의 내용 등과도 다르지 않다. 문무왕은 의상의 건의를 수용하여 곧 공사를 중지하게 했다고 하니, 당시 의상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다. 의상은 원효와 동시대에 활동한 고승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교류했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薩遮尼乾子經』과 『王法正理論』의 臣下論

『살차니건자경』과 『왕법정리론』 등에는 국왕의 덕목뿐 만 아니라 신하의 도리

46) 大師 若彼國王闇鈍無智 不知王論 不行正法 自在作惡 是國王罪 誰應當治 答言 … 若王無智 不能如是自思惟者。應於國內處處推求有 大智慧善知王論 常行正法 能如實語諸沙門等 … 禮拜問訊 盡恭敬心 盡尊重心 問沙門(『薩遮尼乾子經』 卷4, 王論品 2, 大正藏 9 冊, 335a).

47) 『三國遺事』 권2, 文武王法敏條.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왕법정리론』에서는 신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세 부류의 신하가 있다. 첫째는 忠信은 있되 技能이나 智慧가 없으며, 둘째는 忠信과 기능은 있되 지혜가 없으며, 셋째는 忠信과 기능과 지혜를 다 갖춘 이다. 처음의 경우는 낮은 인물라고 하고, 그 다음의 경우는 중간 인물라고 하고, 나중의 것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한다. 만약 忠실하지도 않고 기능도 없으며, 지혜 또한 없다면, 이런 신하야말로 낮은 인물 중에서도 낮은 인물 줄 알 것이다.⁴⁸⁾

『왕법정리론』에서 설하고 있는 세 부류의 신하에 대한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겠다. 『살차니건자경』에는 대신과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사여, 범행을 행하는 왕의 대신과 보좌관과 관리와 군인들이 나라의 일은 근심치 않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분풀이로 공정한 정치를 해치거나, 혹은 재물을 받고 정치를 그르치거나, 백성들이 서로서로 속이고 어지럽히는 일을 더하게 하되, 강한 이는 약한 이를 업신여기고, 귀한 이는 천한 이를 가벼이 하며, 부자는 가난한 이를 속이고, 굽은 것으로 곧은 것을 누르며, 부자는 허리를 펴고 가난한 이는 굴욕을 받으며, 아첨하는 무리가 정사를 주재하고 어진 이가 숨어버리며, 혹 조정에 있을 때에는 위태로울까 두려워 잠자코 있다가 재물을 구해서는 자기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니, 백성들은 빈궁하여 헐벗음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어지럽기를 바라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니, 이것은 대신과 관리가 忠성을 다하지 않고 위를 속이고 아래를 어지럽히면서 외람되이 왕의 녹을 받는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중생의 수효에 포섭되니까?”

“대왕이여, 이러한 나쁜 사람은 빼앗는 중생의 수효에 포섭되며, 상품의 죄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대왕이여, 아옵소서. 그가 왕의 이름난 관직과 중대한 녹을 받으면서도 공무를 버리고 사사로움을 생각하여 공정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 화란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이것에 의합니다. 이는 나라의 가장 큰 도적이니 왕은 법왕이어서 목숨은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빼앗는 무리에다 포함시켜 상품의 죄로써 다스립니다.”⁴⁹⁾

48) 有三臣 一有忠信無技能智慧 二有忠信技能無智慧 三具忠信技能智慧 初名下士 次名中士 後名上士 若不忠信無 有技能無智慧 當知此臣 下中之下(『王法正理論』, 大正藏 33冊, p. 860a).

49) 王言 大師 行法行王 所有臣佐宰官禁司 不憂國計但求利己 或從私忿以害公政 或受貨財 以治道 增長百姓迭相欺亂 以強陵弱以貴輕賤 以富欺貧以曲直 富者獲申貧者受屈 詔佞宰 政忠賢隱退 或時在朝懼危自默 或行求財貨用安己 百姓貧苦不堪充濟 厭苦思亂不聞王命

이처럼 공무를 버리고 사사로움을 생각하여 공정한 정치를 하지 않는 관리는 나라의 가장 큰 도적으로, 이로 인해 나라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상품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무왕은 어느 날 庶第 車得公에게 재상이 되어 백관을 통솔하고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차득공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폐하께서 만약 소신으로서 재상을 삼으려면, 신은 원컨대 국내를 몰래 다니면서 민간에서 담당하는 부역의 괴로움과 수월함, 조세의 가벼움과 무거움, 관리의 청렴함과 탐오함을 알아본 뒤에 관직을 맡겠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차득공은 승복을 입고 비파를 든 居士의 차림으로 서울을 떠나서 阿瑟羅州(溟州)·牛首州(春州)·北原京(忠州)·武珍州(海陽) 등지를 두루 살펴본 뒤에 서울로 돌아와서 재상이 되었다.⁵⁰⁾ 부역이나 조세의 형평성과 관리의 淸濁을 살펴보는 차득공의 경우를 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臣下論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7세기 후반 신라 왕실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주요한 사례라고 하겠다.

IV. 맺는 말

본고에서는 7세기 후반, 즉 신라 중대초기에 있었던 ‘國王 治國의 일’에 대한 불교계의 논의를 당시의 대표적 고승인 원효와 경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라 중대 왕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신앙했고, 국왕들은 독실한 신앙자였다. 궁중에는 별도의 사찰인 內院이 있었고, 국왕은 고승을 초청하여 說法을 듣거나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불교는 통일 직후 三國民의 융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중대초기의 여러 고승들 중에서도 元曉와 憬興은 최고의 學僧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불교의 정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 경론에

斯由臣吏不行忠節 欺上亂下冒受王祿 如是之人 攝在何等衆生數中 答言 大王 如是惡人 攝在劫奪衆生數中上品治罪 何以故 大王當知 以其受王名官重祿 捨公念私不存公政 禍亂之生莫不由之 此是國之最大惡賊 王是法王 不得斷命 是故攝在劫奪數中上品治罪 (『薩遮尼乾子經』 권4, 王論品 2, 大正藏 9冊, p. 335c).

50) 『三國遺事』 권2, 文武王法敏條.

보이지만, 특히 『金光明經』과 『薩遮尼乾子經』, 『王法正理論』에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특히 국왕의 과실과 공덕에 관한 내용이 자세한 편이다. 신라 학승들은 대부분 『금광명경』을 중시했지만, 특히 원효는 2종, 경홍은 5종의 주석서를 각각 지었다. 원효와 경홍은 국왕의 치국과 관련하여 『出愛王經』, 즉 『왕법정리론』에 의하여 이해했다고 한다. 국왕의 10종 과실에 주목하기도 했고, 경홍도 『왕법정리론』의 이 내용을 취하여 국왕의 악을 경계했었다. 이들은 “왕이 만약 과실을 범한다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수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에도 주목했을 것이다. 원효와 경홍은 『살차니건자경』을 그들의 저서에 여러 차례 인용한 바 있다. 이 경의 詣嚴熾王品 및 王論品에도 왕이 지켜야할 여러 도리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금광명경』과 『살차니건자경』에 의하면, ‘국왕은 民의 父母’라고 한다. 그리고 “왕이란 백성으로써 나라를 삼아야 성립될 수 있기에 민심이 불안하면 나라는 곧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원효는 이 구절을 주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살차니건자경』과 『왕법정리론』 등에는 국왕의 현실 정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경전을 주목했던 원효와 경홍은 불교의 정치사상, 특히 국왕의 치국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금광명경』에 대한 원효와 경홍의 주석서는 현존하지 않지만, 다른 저술에 인용된 단편적인 글만으로도 이들이 『살차니건자경』과 『왕법정리론』 등에 의해서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해 심층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효 및 경홍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던 중대초기의 신라 왕실은 이들의 불교적 정치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 받았을 것이다.